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日, 효과 없는 아베노믹스에 침체 들어설까
- ◇ (칼럼)-일자리 정부의 고용 개선 자평에 드리운 '성장 없는 고용' 그림자
- ◇ (초점)-대외 리스크 확대 반영 중인 달러/원, 내주 예정 삼전 배당 여파 주목
- ◇ (초점)-시장금리 급등에 불편한 한 은.. MBS 적정담보 인정·단순매입 가능성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진압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로이터/이반 알바라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1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66.6	-0.8%	-4.4%	-4.1%	유로	1.1050	0.3%	-3.7%	-4.4%
100엔 대비	1,068.9	-0.8%	-5.0%	-6.9%	엔	108.73	0.5%	0.8%	2.8%
유로 대비	1,284.7	-0.6%	-0.6%	0.2%	위안	7.0200	-0.6%	-2.1%	-5.3%
위안 대비	165.88	-0.2%	-2.5%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8,004.89	1.2%	20.1%	-5.6%
코스피	2,162.18	1.2%	5.9%	-17.3%	나스닥	8,540.83	0.8%	28.7%	-3.9%
코스닥	668.51	0.6%	-1.1%	-15.4%	S&P500	3,120.46	0.9%	24.5%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25.36	-1.7%	10.1%	-16.2%
국고채 3Y	1.513%	-0.5bp	-30.4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604%	-4.0bp	-28.0bp	-45.9bp	미국채 2Y	1.614%	-6.6bp	-88.4bp	60.7bp
국고채 10Y	1.790%	-1.3bp	-15.8bp	-52.1bp	미국채 10Y	1.836%	-10.9bp	-85.5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7.72	0.8%	27.1%	-24.8%	한국 5Y	26.63	0.38	-11.44	-13.74
금(현물)	1,467.12	0.6%	14.4%	-1.5%	일본 5Y	20.92	0.42	-0.87	-3.34
TR상품지수	2,386.31	0.4%	0.6%	0.0%	중국 5Y	37.62	2.12	-28.85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 월 18 일(월)>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결과

<19 일(화)>

- 한은, 10 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기재부, 2018 년 기준 주택소유통계(12:00)

<20 일(수)>

- 한은, 10 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한은, 9 월말 국제투자대조표(12:00)

<21 일(목)>

- 관세청, 11 월 1-20 일 수출입
- 한은, 3/4 분기중 가계신용(12:00)
- 한은, 3/4 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12:00)
- 통계청, 3/4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2:00)
- 기재부, 12 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 월 발행실 적(17:00)

<22 일(금)>

- 특이 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 월 18 일(월)>

- 미국, 11 월 NAHB 주택시장지수 (24:00)

<19 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11 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9:30)
- 유로존, 9 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10 월 건축허가 (22:30)
- 미국, 10 월 주택착공 (22:30)

<20 일(수)>

- 일본, 10 월 수출입 (8:50)
- 중국, 11 월 1 년물 · 5 년물 대출우대금리(LPR)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21 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10 월 29-30 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4:00)
- OECD 경제전망(19: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1 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0 월 기존주택판매 (자정)
- 미국, 10 월 경기선행지수 (자정)
- 유로존, 11 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22 일(금)>

- 일본, 10 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일본, 11 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9:30)
- 유로존, 11 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11 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미국, 11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자정)

<23 일(토)>

- 미국, 11 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1: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에 따라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거기에 더해 이벤트성 수급 변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55-1175** 원이다.
- 단계적 관세 철폐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지난 주말 미국 고위 관리들로부터 무역 협상과 관련한 낙관적 발언이 다시 전해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했다. 이에 이번 주초 원화는 이같은 안도감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무역 협상 관련 헤드라인에 따라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 원화는 일방적인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이번 주는 대규모 수급 변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오는 20일 삼성전자는 3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외환시장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외국인 투자자 배당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약 12억달러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 물론 최근 달러/원 환율 움직임이 안정적인 만큼 이같은 수급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대거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주기에는 충분한 규모다.
- 한편 21일에는 이달 한국 수출의 중간 성적표인 20일자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된다. 연말 수출 반등 조짐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수출 지표는 챙겨봐야 할 변수다.
- 또한, 대외적으로는 21일 (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주요 연준 위원들의 경기 및 통화정책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리, 12월 수급 관련 전망 등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11월 들어 초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연말을 앞두고 호가가 얇아진 가운데 매수와 매도가 서로 맞붙으며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다.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적정 레벨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선반영 인식도 일정 부분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미-중 양측에서 잘 되고 있다는 발언이 연쇄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여전히 1단계 합의 언저리에서 립서비스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1단계 합의 발표가 나오면 금리가 한번 더 오를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여지도 있어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이번 주엔 목요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이 관심이다. 12월 수급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물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했는지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분석)-日, 효과 없는 아베노믹스에 침체 들어설까

도쿄 (로이터) - 아베 신조 총리는 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 기록을 앞두고 있지만, 그가 자랑하는 '아베노믹스' 부양책이 상황을 개선시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 경제는 3 분기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부진한 세계 수요에 1 년래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다.

또한 시장은 무역전쟁과 10 월 소비세 인상 여파로 10-12 월 일본 경제가 수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 애널리스트들은 10-12 월 일본 경제가 2.5% 수축한 뒤 2020 년 1 분기 0.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까스로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사람 중 하나인 야마모토 고조는 "일본이 경기 침체로 고통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누가 일본이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이다.

일본은행(BOJ)은 수년간의 공격적인 통화 부양책 이후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대규모의 국가부채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설비지출 역시 2020 년 도쿄 올림픽 이후 둔화될 수 있다.

야마모토는 그럼에도 상황 해결을 위한 해답이 더 많은 정부 지출에 있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라며 아베 총리가 적어도 5 조 엔(460 억 달러)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된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은 물가상승률을 BOJ 목표치 2% 목표까지 끌어올리는데 실패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다

음 경기 침체에 싸울 효과적인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2012 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듬해 윤곽을 드러낸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인 통화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도움을 줬다. 수출업체들은 엔 약세를 통해 큰 이익을 봤으며 지난해 주가는 27 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모두 줄었다.

BOJ 는 해외 리스크 확대에도 지난달 정책을 동결했으며,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필요하다면 정책을 완화하겠지만 장기적 완화는 은행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생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BOJ 는 이미 대규모 통화 완화를 하고 있다"라며 "추가 부양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은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다.

◆ 효과 없는 바주카포

대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구로다 총재는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성장을 촉진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주 "만약 정부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일본이 경제규모의 두 배나 되는 국가부채에 이미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선심성 지출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실제로 이러한 지출에 효과가 있을지조차 의심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아베가 내각에 정리하라고 지시한 또 다른 경기부양책에 5-10 조 엔이 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아베 총리는 이러한 부양 패키지 4개에 약 30조엔을 지출했지만 이로 얻는 이익은 점차 줄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공공사업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17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잔여 예산 중 60%는 공공 사업을 위해 배정된 것이었다.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시사한다.

아베노믹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재팽창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절실히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과 기술 혁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질질 끌었다고 밝혔다.

오츠가 고헤이 전 BOJ 관리는 "일본은 세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구식 거시경제 정책에 몰두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BOJ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된 효과 없어 보이는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국제 발행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예전 BOJ는 바주카포를 쏘았지만 이제 이는 공포탄일 뿐"이라고 밝혔다.

※ 아베노믹스 성과 인터랙티브 그래프 모음

- ▶ <https://tmsnrt.rs/2CG1jOf>
- ▶ <https://tmsnrt.rs/2XhIRoY>
- ▶ <https://tmsnrt.rs/2QgQQRu>
- ▶ <https://tmsnrt.rs/2XcFGyA>
- ▶ <https://tmsnrt.rs/2KnHP5w>

(칼럼)-일자리 정부의 고용 개선 자평에 드리운 '성장 없는 고용' 그림자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고용시장은 8월 이후 뚜렷한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10월 고용 동향에 대해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평가다.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만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제협력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로 올랐고 실업률은 3.0%로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3대 고용 지표가 확연히 개선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현저히 개선된 수치 이면의 세부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런 정부의 호평은 몹시 불편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아 아쉬워한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 착시 효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 9천명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1만 7천명이 늘었고, 50대에서 10만 8천명이 늘었다. 반면 40대에서는 14만 6천명, 30대에서는 5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부터, 30대 취업자는 2017년 9월 이후 줄곧 감소세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5만 1천명 늘었다. 이 업종은 정부의 재정 사업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11만 2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9만 6천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8만 1천명, 도매 및 소매업에서 6만 7천명, 금융 및 보험업에서 5만 4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동욱 통계청 과장은 "산업별 측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인데, 이같은 업황 부진 영향을 40대가 받고 있다"면서 "40대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취업자로 유입되기 어려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의 질적 개선 지표로 제시하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증가 내역을 들여다보자. 10월 상용 근로자는 57만 5천명 증가해 2014년 2월 이래 가장 많이 늘었지만 50·60대 위주로 증가했다.

아울러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 만 1 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4 만 3 천명 감소해 10 개월 연속 감소했다. 결국 기존 고용원을 해고하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고용원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취업 시간대별 내역을 살펴보자.

주당 36 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 만 8 천명 감소한 반면 36 시간 미만 취업자는 59 만 9 천명 늘었다. 특히 14 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올해 5 월 30 만명 가까이 늘었고, 지난 8 월부터 석달 연속 20 만명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성장 없는 고용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늘고 15~64 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정부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일례로 10 월 30 대 인구는 11 만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는 5 만명 줄었다. 30 대 고용률(76%)을 감안할 때 취업자 수는 8 만 3 천명 정도가 줄어야 하지만 실제 취업자 감소폭은 이보다 적다. 40 대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인구 감소 여파를 간과하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증가를 마냥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복지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며 고용 시장의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3 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은 취약 계층을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확장 재정에는 민간 활력을 되찾는 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기 처방에 따른 고용의 양적 성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다. 고용 시장이 회복

됐다고 자평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고용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때다.

(초점)-대외 리스크 확대 반영 중인 달러/원, 내주 예정 삼전 배당 여파 주목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 낙관론이 주춤해지고 홍콩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급 변수가 대기하고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분기 배당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송금 수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 일 3 분기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31 일 3 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주당 354 원 배당 지급 계획을 함께 밝혔다. 총 배당 규모는 2 조 4046 억원으로 이 중 외인 주주 몫은 약 1.4 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12 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이는 12 억달러 상당으로, 배당일을 전후해 달러/원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배당을) 일부 재투자할 한 다고 하더라도 실물량으로 꽤 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2 분기 배당금을 지급했던 지난 8 월은 달러/원 환율이 약 3 년 만의 최고치인 1220 원대로 급등해 상승 압력이 연중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렇다 보니 배당 역송금 수급에 따른 시장 경계감도 컸고, 실질적인 수급 여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환율은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에 편승해 기존 상승분을 상당 부분 되돌려 1150 원대까지 후퇴해 있는 만큼 일시적인 배당 관련 수급 경계는 이전보다는 제한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난 한 달 새 환율이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미-중 무역 협상 및 홍콩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스멀스멀 확산되는 상황에서 비록 일회성이라도 이같은

수급은 환율 움직임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쏠렸던 심리가 최근 완화된 가운데 삼성전자 배당 관련 역송금 수요가 글로벌 상황과 맞물린다면 환율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달러/원 레인지 하단은 1160 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시장금리 급등에 불편한 한은..MBS 적정담보 인정·단순매입 가능성은

서울 (로이터) - 최근 채권 금리 변동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연말 한국은행의 '등판'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시장금리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데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내년 국채 발행 증가 등 수급에 부담이 되는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연말을 앞두고 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한은이 MBS 적정담보 인정, 단순매입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향후 시장 불안시 MBS 적정담보 인정 가능성

향후 한은이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는 MBS를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 금통위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금융 중개 지원 대출, 일중 당좌대출, 자금 조정 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려 할 때 제공하는 담보 증권에 MBS를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MBS 발행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매입한 은행의 자산운용 부담도 커졌다. 금통위는 MBS를 한은 대출과 차액 결제 이행 적격담보로 포함시켜 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장돼 운용됐다. 한은은 지난해 말 MBS를 차액 결제 이행 적격

담보로 영구화하기로 했지만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종료시켰다.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에 따른 은행의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은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은행들은 다시 한번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20 조원의 안심전환대출 MBS가 발행될 예정이고 은행들은 각자 대한 비중에 따라 이를 분배해 매입하게 된다.

연말 MBS 발행과 함께 시장금리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은이 기존에 이미 한 번 시행했던 조치를 되살리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MBS를 은행 대출 적정담보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 아직은 없다"며 "아직 은행들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이 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담보 수준이나 대출 규모, 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6년엔 시장안정용 단순매입.. '지금과 그때가 같은 상황인가'

채권시장이 패닉으로 빠져든다는 판단이 들 경우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 지난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깜짝 당선된 뒤 시장금리가 급등했을 때 한은은 이 카드를 사용한 바 있다.

당시 10년 국채 선물이 하루에 100 톱씩 움직이며 일방적인 조정장세가 나타나자 한은이 시장 안정용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시장 안정 목적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들은 시장 안정 목적의 국고채 단순매입 기준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다만 시장뿐 아니라 한은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다른 관계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시장 안정 목적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금리 상승과 하강 추세 등 여러 상황이 있는데 현재 시장 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음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16년에 국고채 단순매입을 할 때는 시장 관계자들과 직접 회의를 열고 분명한 우려를 전달받았다"며 "최근 금리 상승이 그때처럼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